

점령하라

희망텐트 노동자참가단 특보4호

전화번호 : 010 - 7228 - 1805

블로그 : blog.jinbo.net/occupy77

이메일 : occupy77@jinbo.net

후원계좌 : 국민 812702-04-215225(조영태)

쌍용자동차 투쟁 승리!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노동해방 세상 건설!

2월 11, 12 쌍용차 3차 포위의 날을 조합원의 직접행동으로 전국노동자대회로 만듭시다!



지난 “쌍용차 희망텐트 연대모임 2차회의”에서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민주노총이 대략 1500여명을 조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금속노조도 2차에 이어 다시 2500여명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다행한 일이며 좋은 결정이다.

나아가 3차 투쟁을 앞두고 ‘희망투벽이’라는 이름으로 ‘재능에서 쌍차까지’와 ‘한진중공업에서 쌍차까지’를 힘차게 가동했다. 또한 우리 ‘쌍용차 희망텐트’ 노동자참가단도 지난 1, 2차 투쟁에 이어 쌍차지부와 공동으로 더 광범위하게 전국순회투쟁을 전개하면서 전국노동자들에게 투쟁에 결합할 것을 호소하고 조직하기에 다시 나섰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 쌍용차 희망텐트 투쟁은 아직 정세의 한 복판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부르주아 언론이 철저히 무시하거나 외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아직 투쟁 역량이 부족한 것이 더 큰 이유이다. 1, 2차 투쟁에 참여한 동지들이야 모든 열과 성을 다해 투쟁에 결합했지만 그 정도로 정세를 흔들 수는 없다. 더구나 쌍차투쟁은 한진중공업 투쟁과는 사정이 다르다. “적자 기업”에다가, “일거리도 줄고 있다” 희망버스에 참여했던 연대 대열의 눈높이로 보더라도 투쟁 목표가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노동자들도 이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쌍차투쟁은 대중들에게 “

승리를 위해 나아가는 투쟁”이라는 자신감을 아직은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런가? 무엇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안일한 태도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실질적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지 않고 있는 것이 결정적 문제다. “쌍용자동차 노동자 전원복직”은 단지 구호가 아니다. “전원복직”을 통해 실질적으로 정리해고제를 무력화시키고 법 자체를 폐지하자는 요구는 그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다. 모든 노동자가 절규하고 있는 절박한 요구다.

더구나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생각하면 쌍차투쟁은 사실상 자본과 정권에 맞선 거대한 계급투쟁을 일으키지 않고는 그 향방이 결정되기 어렵다. 이런 현실에서 쌍차투쟁을 무슨 1, 2, 3차 행사 정도로 생각한다면 당장 그 생각을 접어야 한다. 선거 승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런 생각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쌍차투쟁을 전 노동자의 투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쌍차지부 동지들이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 투쟁에 임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앉아서 지침을 기다리면 그 뒤는 공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노조와 진보정당 지도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현재대로라면 그들에게 쌍차투쟁은 그저 지나가는 일정일 뿐이다.

이제 조합원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 1500명, 금속노조 2500명에 속하거나 거기에서 빠지거나 둘 중의 하나여서 안 된다. 총파업을 일으키기가 아직 어렵더라도 이번 쌍차 3차 집중투쟁은 조합원이 직접 나서서 전국노동자대회로 만들어야 한다. 공식 지침이 없는 속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투쟁이야말로 훨씬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11, 12일은 주말이다. 잔업/특근을 일시라도 반납하고 평택공장으로 달려가자.

평조합원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마음껏 펼쳐내자. “점령하라, 1%에 맞선 99%의 투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자. 아래로부터 분출하고 있는 세계적 투쟁물결을 평택에서 이어가자. 노동자의 투쟁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자. “돈을 쓰자, 시간을 내자, 노력을 다하자, 마침내 투쟁을 되살리자” 그리하여 한국노동자계급이 시퍼렇게 살아 있다는 것을 조합원들 사이에서 확인하자. 말로 하는 비판의 무기를 넘어 직접 행동을 통한 무기로서의 비판을 꺼내들어야 할 때다.

이렇게 합시다.

▷ 쌍차투쟁에 대한 생각과 판단을 모읍시다.

- 답아만 두었던 생각을 꺼내어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확인합시다.
- 모든 장소에서 쌍차투쟁을 화제로 이야기 합시다.
-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각자의 의견을 말합시다.

▷ 3차 포위의 날을 전국노동자대회로 만들자는 요구를 펼칩시다.

- 자신이 속한 현장과 노조에서부터 이 운동을 시작합시다.
- 모든 모임에서 이 운동을 함께하자고 제안합시다.
- 노조가 공식 결정하라고 조합원들이 압력을 가합시다.

▷ 평택으로 달려갈 자발적 참여자를 직접 조직합시다.

- 노조의 지침에 얽매이거나 기다리지 말고 자발적으로 참여자를 모읍시다.
-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참여하는 동지들에게 마음과 비용을 모아 줍시다.
- 나부터의 시작이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자신감과 전망을 가집시다.

쌍용차 투쟁 승리, 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 노동해방 세상 건설을 위해 쌍용차지부와 노동자참가단이 공동으로 전국순회투쟁을 전개합니다!

쌍용차 투쟁에 노동계급의 모든 요구가 녹아 있다!

쌍용차라는 창을 통해 우리의 현장을 들여다보자. 과연 많이 다를까? 희망텐트촌에 한번이라도 방문을 해본 노동자라면, 가장 먼저 출입문에 설치된 지하철 게이트를 발견한다. 출입증을 바코드 찍듯 정문 안으로 들어가면 바깥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공포 : “당신 말고도 일할 대기자들 많다”

용역 경비와 관리자들의 고압적인 현장 통제와 노무관리, 몸이 아파도 병가는커녕 힘들다는 소리 한번 내지 못한다. “힘들어? 당신 말고도 바깥에 일할 사람 널렸어.” 산재 신청은 꿈도 못 꾸며, 내 돈으로 통원치료하며 공장에 다닐 수밖에. 산 입에 거미줄 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라인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무단이탈 징계를 협박하고 ‘공장혁신팀’의 억압적 통제에 자신의 몸을 불사른 현대차 울산공장 신승훈 열사가 겪었던 현실과 무엇이 다른가? 조합원의 노동안전을 위해 헌신하다가 조합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자본에 맞서 목을 맨 현대차 아산

공장 박종길 열사의 고통과 얼마나 다른가?

억압과 통제가 판치는 현장, 나를 지켜줄 이 누구인가? 민주노조 깃발을 빼앗고 들어선 기업노조는 현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고 싸웠던 동지들은 현장 밖으로 밀려나 엄동설한에 장기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복수노조와 타임오프 악법으로 호시탐탐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모든 자본가들이 쌍용차 기업노조를 칭송하고 있다. 바로 우리 사업장 자본가들이!

나사못 : 인간이 아니라 노예를, 공장이 아니라 수용소를 원하는 자본가

평택공장 3개의 생산라인 중 액티언, 액티언스포츠, 카이런, 렉스턴 등 무려 4개의 차종을 혼류생산하는 조립3팀은 평일 3시간씩 잔업, 주말특근까지 팽팽 돌아간다. 죽어라 뺨이 치며 일하느라 몸에는 골병이 들지만, 공포의 생산현장은 침묵과 총력 생산을 요구할 뿐이다.

반대로 일감이 없는 조립 1,2팀은 정취근무만 하고 있다. 야간근무가 없어진 것은 좋지만 월급봉투가 비어간다. 4대보험과 세금 떼고 나면 월 120만원. 그나마 2달마다 나오는 상여금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간

다. 비정규직들은 법정 최저임금이라 입에 풀칠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생산물량도 노동강도도 사측이 결정한다. 물량에 따라 이리 박혔다 저리 박혔다 나사못처럼 뺨이를 돌린다.

이명박과 노동부가 장시간노동과 심야노동을 근절하잔다. 좋다! 노동시간 단축해서 일자리도 늘리잔다. 그것도 좋다! 그런데 이게 뭐야? 생산이 팽팽 돌아가는 곳에서는 인원충원 없이 생산량을 늘려버렸다. 무급휴직자·정리해고자·비정규직 해고자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할 현장에 노동강도만 높아진 것이다. 일감이 없는 곳에

서는 임금이 절반 밑으로 푹 떨어졌다. 이런 게 저놈들이 얘기하는 장시간노동 개선 대책이란다.

하청 인생 : 절망 공장, 죽음의 공장

정리해고가 자행된 현장에는 듣도 보도 못한 ‘분사’란 것이 생겼다. 알고 보니 ‘하청’의 다른 이름이었다. 출고사무소, 시설팀, 부품도장, 자재를 보급하는 물류센터에 분사가 들어섰는데, 애초 사측의 주장과 달리 이쪽 업무만 담당하는 게 아니었다. 슬금슬금 분사 소속 하청노동자들은 생산라인 일부에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희망퇴직한 일부 노동자들이 분사로 들어왔는데, 와 보니 사장이란 자는 희망퇴직을 진두지휘한 관리자 출신이었다. 원청의 지시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이지만 소속은 하청업체. 여전히 과거의 관리자 밑에 있지만 쌍용차와는 아무 상관이 없단다. “또 죽었대. 왜 예전에 프레스부에서 일하던 ○씨 알지? 찢리고 나서 부인 이랑 헤어지고 혼자 살았다더군 ...” 아니다. ○씨 만인가? 이별의 상처가 아물만하면 또다시 들려오는 통곡 소리들, 벌써 스무 명 쯤다.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이 땅 모든 노동계급의 힘을 동원해서!**

한 발짝만 밀리면 우리 현장도 쌍용차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쌍용차만이 아니라 현대차비정규직, 한국스리엠, 풍산마이크로텍, 세종호텔, KEC 등 투쟁사업장 모두가 사업장 차원의 투쟁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아니, 투쟁사업장만이 아니라 한국에 존재하는 사업장 모두가 그렇다. 노동계급 전체의 힘을 동원하여 계급의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런 투쟁을 조직할 때만이 쌍용차 투쟁만이 아니라 한국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 전망을 열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슨 요구를 내걸고 싸움을 조직할 것인가?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를! 현장통제 분쇄와 민주노조 복원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생활임금 보장받는 노동시간 단축을! 주간연속 2교대 쟁취를! 자, 동지들! 바로 현장에서 동지들 스스로 외치는 절실한 요구가 아닌가! 전체 노동계급의 힘을 동원하는 총파업·총력투쟁을 해야 한다. 쌍용차투쟁이 이 투쟁의 선두에서 있다.

10일동안 전국의 노동자 동지들을 만납니다.



쌍용차 투쟁전선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정치적 요구를 드높여 나가자!

3차 대회를 앞두고 쌍용차 희망텐트 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쌍용차 희망텐트 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작년 12월 7일 금속을 중심으로 500명이 모여 출발한 희망텐트촌 투쟁은, 1차 대회 1000명, 2차 대회 3000명으로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모이는 숫자만 불어난 것이 아니다. 19명의 죽음(죽임)이 있었음에도 2년 6개월간 미동도 하지 않고 오만불손한 태도로 일관한 쌍용차 경영진들에 대한 분노를 넘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분노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제 쌍용차 투쟁은 연말연초를 경과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동안 억눌려 왔던 노동자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고 있다. 쌍용차 정문과 희망텐트에서 희망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3차 대회를 앞둔 현재, 전국 노동자들이 큰 기운을 모으고 있다.

재능에서, 한진과 현자 비정규직에서, 충남의 유성과 경기에서 해고되어 쫓겨

난 동지들이 쌍차 정문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철의 노동자 금속을 넘어서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까지, 2월 11일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77파업에 이은 제2라운드)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이 담고 있는 그 위상은 결코 가볍지 않다. 금속에서 전 산업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비정규직투쟁의 상징이 된 서울의 재능에서 작년 정리해고를 온몸으로 막아내 온 부산의 한진까지, 노동자 계급과 희망버스에 결합했던 수많은 양심까지도 3차 희망텐트로 모이려 하고 있다.

정리해고, 비정규 철폐를 중심에 내걸고 총선국면을 정면 돌파해 나가자!

작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한진과 희망버스 투쟁을 되돌아보자!

희망버스 투쟁은 역으로 변변한 실력과 대오를 갖추지 못했던 민주노조 운동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 주었다. 그럼에도 고공분투 한 김진숙 동지로부터 촉발

된 희망버스 운동은 역동적인 형태로 연출된 투쟁이었다. 수많은 양심도 가세를 했지만, 그 중심에는 노동자들이 존재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노동탄압과 정리해고에 맞서, 비전 없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비정규직의 설움과 불만이 마침내 분출된 것이다. 09년 쌍용차 투쟁을 기억하고 있는 동지들이 2012년 쌍용차 투쟁으로 집중하고 있는 힘들은 바로 여기에 있다. 쌍용차 희망텐트촌이 바로 노동자간의 첨예한 모순이 응축된 실질적인 전장이기 때문이다.

한편, 유럽발 위기로 인해 한국경제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내 몰리고 있다는 것이 이리저리 감지되고 있다. 제도권 정당들만이 폭탄이 장전된 경제위기 국면을 아랑곳 하지 않을 뿐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명박 정권이 망쳐놓은 서민경제를 복지확대로 보상하면 된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4월 총선만 무사히 넘긴다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복지 불가능을 선언하고 구조조정 의 칼날을 들이밀 것이다.

현재 쌍용차 및 제반 노동자들의 투쟁은 4월 총선과 구조조정을 몰고 올 경제위기 진입 국면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쌍용차 정리해고 철폐투쟁은 그 자체로 국가권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다. 정리해고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복지 타령만 일삼고 있는 자본가 정당에 대한 폭로의 장이다. 쌍용차 희망텐트 투쟁을 통해 4월 총선과 구조조정 공세를 정면 돌파하자! 쌍용차 해고 철폐를 넘어서서 노동자의 정치적 요구를 집중시켜 내자!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자본주의 분쇄 노동해방 쟁취!

다가오는 3차 대회를 2차 대회의 성과를 이어 받아, 5천명 이상이 모여서 생동감 넘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만들어 내자! 해고 등 투쟁하는 사업장 동지들과 활동가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사이에 두고 국가 권력과 정면으로 맞짱 뜨고 있는 쌍용차 전선의 확대를 위해 목적의식적인 조직화와 직접적인 공동행동을 전개하자!

쌍용차 동지들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생계비) 모금운동이 곧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운동입니다.

노동자 파업투쟁과 재정모금 운동의 역사적 교훈을 되살립시다.

국가권력의 탄압에 직면했던 역사속의 (일제하, 독재치하, 현재까지) 파업투쟁도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노동자의 생계가 끊기고, 가족이 붕괴하면서 파업동력의 저하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동지들!
자본과 정권이 파업을 파괴하고,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개별적으로 목을 조여왔을 때, 우리 선배 동지들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가장 위력적으로는 연대 총파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총파업이 가능하게 하는 계급적 단결의 다양한 실천이었습니다.

특히, 파업 투쟁기금 조성은 그 자체로 투쟁의 정당성과 절박성에 대한 사회적 호

소이자, 공감대였습니다. 무엇보다 투쟁 당사자들이 생계의 압박을 극복하고 흔들림 없이 파업전선에 임하게 했던 물질 토대였습니다.

2012년 포문을 연 쌍용차 투쟁을 '생계비지원'으로 지지, 엄호하여 나가십시오.

1,2차 쌍용차 희망텐트 투쟁은 '점령하라!' 운동의 또 다른 한국판 전형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희망텐트 3차 대회는 침체된 노동운동을 일신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맨 선두에서 온갖 어려움을 딛고 싸우는 쌍용차 동지들이 존재합니다. 쌍용차 동지들은 09년 77파업이 끝난 후 현재까지 2년 6개월간 엄청난 시련(개인 생계위협, 구속 등 형사적 탄압과 민사상 탄압, 자본에 의한 노동자들의 분열책동 등)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생계위협은 심각한 수준 이어서,

이대로 계속 된다면 다수의 동지들이 지금처럼 투쟁을 이어가지 못할 위기로 내 몰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동지들에 대한 재정지원은 단순히 개별에 대한 지원을 넘어, 쌍용차 투쟁을 살리고 나아가 전국적 투쟁을 확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지들!
쌍용차 동지들을 살려내는 재정모금 운동에 동참합시다. 그리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철폐투쟁이 응축되어 있는 쌍용차 투쟁 전선으로 달려갑시다. 4월 총선에서 노동자계급을 제물로 하는 기만적이고, 선심성인 복지늬를 판을 뒤엎어 버립시다. 쌍용차 투쟁을 확산시키면서 총파업투쟁까지, 나로

부터 시작하여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노동자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십시오.

쌍용차지부 생활안정기금
CMS모금운동

동지의 월 2,000원이
더 이상의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쌍용차 희망텐트촌 노동자참가단
(blog.jinbo.net/occupy77)

1월 31일 민주노총 대대, 자본가정당과 단절하라는 노동자의 요구를 저버리다.

통진당이 설 전에 선전포스터를 통해 대문짝만한 크기로 “전태일과 노무현이 만났습니다. 여기 통합진보당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하의 전태일 열사가 통탄할 일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한 억지와 기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를 본 노동자들이 여기저기서 분노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같은 현실이 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노동자들 때문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바로 노조 관료지도부가 만

들어낸 것입니다. 통진당이 백주대낮에 대 놓고 노동자계급을 우롱할 수 있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노조 관료지도부입니다. 총파업투쟁은 엄두도 낼 수 없게 된지가 너무도 오래입니다. 총파업투쟁은 현실이 아닌 이미 지나간 역사가 돼 버렸습니다. 이른바 총력투쟁이란 용어조차도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총파업투쟁과 총력투쟁을 사이에 놓고 논쟁을 벌였던 시절이 그리운 현실입니다. 이른바 ‘준비된 투쟁’(사실은 투쟁 회피)을 하겠다는 말이 다시 듣고 싶은 심정입니다.

노동자들은 이미 지도부를 믿고 어떤 투쟁을 벌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촛불정국에서도, 2009년 쌍차 77일 투쟁에서도, 한진중공업 투쟁에서도,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장기투쟁에서도, 지금의 희망텐트촌 투쟁에서도 공식 노조 지도부는 방관자일 따름입니다. 오히려 어렵게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타협을 중용하거나 야권연대에 의존할 것을 압박하는 일이 그들의 본업이 되었습니다.

1월 31일 열린 민주노총 대대에서 “자본가정당과 단절하라는 요구”는 끝내 묵살됐습니다.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의 향방을 다시 가를 수 있는 선거방침과 정치방침에 대해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현실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가 성원미달 때문이었습니다. 결코 어이없는 일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대의원 소환/탄핵운동을 벌여야 하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자본가정당과 단절하라는 요구는 특정 정파만의 요구도, 뭔가 특별한 요구도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대한 요구인 것입니다. 87년 이후 성장한 계급 투쟁의 성과를 마지막으로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미래 노동자계급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한 요구입니다. 이를 너무나 잘 알기에 구민주노동

당 내부에서조차 엄청난 저항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선거방침은 기존 관례로는 중집에서 결정한” 바가 있다는 것을 내비쳤습니다. 자명합니다. 또 다시 밀실에서 이 같은 중대 결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김영훈 위원장은 “정치방침은 조합원 총투표를 묻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도 함께 내비쳤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민주적인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임시방편으로 현실을 모면하려거나 진실을 왜곡하는 꼼수일 뿐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대에서 총파업투쟁을 결정했습니다. 6월말 7월 초 사이에 임단투를 중심으로 ‘경고 파업’을 하고, 8월말 경에 ‘노동법 전면재개정’ 지지 총파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대로만이라도 하기를, 아니 그렇게 되도록 평조합원이 지금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쌍차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투쟁을 비껴가면서 어떻게 그 때는 총파업을 조직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은 휴지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총선을 위해 투쟁을 조직하고 있지 않은 현실을 어

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민주대연합, 야권연대, 선거심판에 목을 매고 있는 지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본가정당과 단절하지 않는다면 이제 통진당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민주노총을 비롯한 공식노조 관료지도부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을 통한 정치세력화의 몸통은 바로 민주노총을 통한 정치세력화입니다.

1월 31일 대대에서 87년 이후 노동자계급의 염원이자 요구인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최종적으로 파탄 났습니다. 이제 아래로부터의 평조합원 운동을 건설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현장조합원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하는 것만이 노동자계급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진보정당 중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를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진당이 진보정당이나 아니냐를 놓고 논쟁할 이유가 없지는 않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조합원을 비롯한 미조직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실업노동자, 청년학생, 특히 여성노동자 등 자본주의 체제와 부르주아 정치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탄압받고 있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투쟁을 다시 시작하는 일입니다. “점령하라, 1%에 맞선 99%의 투쟁”이 가리키고 있는 자본주의 반대/철폐투쟁에 떨쳐 일어나십시오.

정리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정말의 공정을 확인으로 정명할

3차 포위작전
3차 포위의 날 2월 11일 12일

더 분노 행동하라!

비정규직 없는 세상
더 행동하라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 한분의 희망까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쌍용차 사측은 강연이설로 정리해고를 정당화했으나
자신이 필요할 때 다시 부르고 너무나 쉽게 휴직조각처럼 계약해지한 행위는
명백한 살인입니다.
비극이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체념과 눈물만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21번째 죽음은 없어야 합니다
1000일이 오기 전에 우리의 행동으로 반드시 죽음의 행렬을 멈추십시오
참을래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더 큰 분노로 더 큰 행동으로 쌍용차에 책임을 물읍시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받다

2월 11일
3차 포위가 시작된다

정리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가능하다

포위 액션하라
11일
집결: 평택역 오후 3시
무박투박 공장 앞으로 행진: 평택역 출발 오후 4시
더 분노하라 액션
쌍용차 희망민들기 1박2일 공장 정문 오후 7시부터
더 행동하라 액션

노동자 참가단 3차 전체 집담회



- 일시: 02월 11일 (자정 즈음)
- 장소: 쌍용차 평택공장 희망텐트촌 근처
- 참가 대상: 희망텐트촌 노동자참가자 및 누구나
- 주제: 쌍용차 투쟁의 전망과 계획

참가문의 블로그: blog.jinbo.net/occupy77
전화번호: 010-7228-1805